



4면
전주 생태동물원서
늑대 5남매 '첫 산'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빌 6번지

2020년 8월 20일 목요일 (음 7월 2일) 제260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지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전북도, 교회발 코로나 확산 우려... 행정조치 발동 미착용시 과태료... 수도권·타지역 이동 자제 권고

전북도가 연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는 가운데 19일 오후 2시부터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최근 광복절 연휴 이후 도내 코로나 19 확진자는 지난 16일 1명, 17일 7명, 18일 5명 등 모두 13명이며 확진자 관련 접촉자의 증가 및 진행되는 검사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 8월 15일 집회참석자 등의 조기산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등 도내 전 지역에 걸쳐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에 따라 도민에게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 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별도의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생활 또는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감염확산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할 계획이다. 다만 즉시 실시의 행정적·물리적 어려움을 감안하고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별치조항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는 8.15 집회를 전후해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연유하는 감염병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상황

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이지만 2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대책을 추진, 특히 종교단체 집회 및 소모임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도와 시군이 현장 점검을 강화해나간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적발된다고 판

단될 시에는 추후 집합금지 명령 등 강화된 조치 실시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도내 코로나 확산의 주요사태가 수도권 방문 또는 도내 방문자와의 접촉에서 연유되는 만큼 도민들의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이동 자제와 함께 도내 방문도 자제 또는 연기 등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청정전북을 앞으로도 지켜내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 참여와 방역당국의 노력이 함께 조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종교시설 소모임 자제, 비대면 예배 활성화,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 및 도내방문 자제 등 3가지 수칙을 개인 방역차원에서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북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만큼 도민 전체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도 방문자에 대해서도 의무화가 불가피하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수해복구에 써주세요” 19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사)나누우리(태고종) 침수 피해지역 수해복구 성금 기탁식에 송하진 도지사(가운데)와 (사)나누우리 이사장 도산스님,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한국불교 태고종 전북총무원장 진성스님 등 참석자들이 기탁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 코로나 확진 4명 늘어 ‘초비상’

연휴에 수도권 가족 등 접촉

전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자 4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 확진자는 연휴 기간동안 9명이 집단으로 발생하는 등 모두 56명으로 늘어났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19일 브리핑을

갖고 군산의 50대 남성과 60대 여성, 익산의 30대 남성, 고창의 80대 여성 등 4명이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18일 저녁 10시부터 19일 새벽 사이에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번에 추가된 확진자들은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나 사랑

제일교회 방문 이력 없는 것으로 판

단됐다.

이번 확진자들은 광복절 연휴를 전후해 서울에 머물렀거나 수도권 가족과 접촉했다. 특히 이번 확진자들이 만난 수도권 가족들은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모르고 연휴에 전북을 찾았다가 바이러스를 전파했다.

확진자들은 군산의료원과 원광대학교병원으로 분산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확진자 휴대전화 및 카드사용 내용,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감염 경로, 동선 접촉자 등을 확인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가 다녀간 음식점과 시설 등에 대한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른 가족 등 접촉자에 대해서도 진단 검사를 하고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2주 정도가 지역감염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감염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말 많고 탈 많은’ 학교운동부 공공형 스포츠클럽으로 전환

전북교육청, 1인 1스포츠 활동 통해 우수선수 양성

도내 초·중학교 학생들은 앞으로 자신이 속한 학교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 스스로 하고 싶은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9일 브리핑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인화 작업을 거친 후 2021학년도부터 공공형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시설운영비로 150억원을 확보, 팀당 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스포츠클럽은 경남도에서 운영중이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운동부를 공공형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공공형 학교스포츠클럽으로의 전환 목적은 1인 1스포츠 활동을 통해 육성종목의 저변을 확대하고 학생 선수들이 참되게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경쟁력 있는 학생선수 육성에 있다.

특히 학교운동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회계부정, 위장잔인, 입시비리, 성폭력 등 위반사태를 근절하고 학생인구 감소로 인한 선수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단체 종목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단일학교에서의 육성이 어려운 종목을 학교 밖에서 운영해 학생들의 다양한 신체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먼저 학교에서 육성종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내 초·중학교 축구 11팀(초6팀, 중5팀), 야구 8팀(초4팀, 중4팀)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신청을 받아 지역형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된다.

지역형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전환 시 연간 3,000만원씩 5년간 지원하

고 휴게공간 시설 개선비 등을 지원한다. 단, 숙소는 제외된다.

또 위탁형 스포츠클럽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이스하키, 유도, 배드민턴, 인라인롤러, 스피드스케이팅, 싱크로나이즈드 피겨, 배구, 농구, 컬링, 탁구 등 10개 종목의 경우 종목별로 위탁사업비 4,000만원을 지원하고 2021년에는 수영 종목을 추가해 위탁형 스포츠클럽을 운영할 예정이다.

1단계로 학교운동부를 2021년까지 지역형 스포츠클럽(축구, 야구)과 위탁형 스포츠클럽(11개 종목)으로 전환하고, 2단계로 2022년부터 지역생활체육이 활성화된 종목 중심으로 클럽 가능한 종목 및 외부시설을 이용하는 종목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학교운동부가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안정적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학교관계자 및 학부모 대상 설명회와 컨설팅을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형·위탁형 학교스포츠클럽 시범운영을 확산해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한 경쟁력 있는 학생선수를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상동 과장(인성건강과)은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 학교, 지역, 국가대표로의 연계가 가능하고, 또 스포츠로 자신의 잠재력을 키워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운동과 학업을 병행해 자신의 소명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형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따른 지도자 처우개선 및 학부모 만족도 제고 등 선결과제가 남아 있다.

/정은성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ktv, NAVER TV, Dd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